

기아·금호타이어 파업 전운...쟁의행위 '가결'

기아와 금호타이어 등 광주·전남지역 대형 사업장 노조가 잇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11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기아와 금호타이어 노조가 최근 잇따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가결했다.

기아 노조 투표는 지난 8일 전체 조합원 2만

언을 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조정신청을 냈던 기아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도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79.48%(3529명 중 2805

기아노조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정년 연장”
 금타노조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성과급 지급·광주공장 설비 투자”

6693명 중 89.5%인 2만3884명이 참여했으며 찬성표는 2만2035표로 투표 참여 인원 대비 92.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사측과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 선

명 찬성)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그동안 사측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성과급 지급 외에 광주공장 설비 투자 등을 요구해 왔다.

금호타이어 측은 “대화를 통해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조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대학 수시모집 시작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 11일 경기도 수원시 조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선생님과 진학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일반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전문대(1차)는 이날부터 10월5일까지 대학별로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전문대 수시 2차 원서 접수는 오는 11월10~24일이다.

요소수 '판매중지·배송지연'...“소비자는 불안하다”

대란 우려 운전자들 사재기 나서

중국이 자국 내 비료업체의 요소 수출을 중단시킨 가운데 한국에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요소수 브랜드인 롯데정밀화학의 '유룩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요소수 판매를 중단했다. 요소수 대란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주문이 폭증한 탓이다.

지난 8일 유룩스는 홈페이지에 '긴급 배송 중지' 공지사항을 올려 소비자에 판매 일시 중단과 배송 지연을 안내하기도 했다. 유룩스는 “일시적인 주문 폭증으로 인해 택배 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며 “빠른 배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11번가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도 유룩스 요소수는 대부분 매진됐다.

선호도가 높은 제품인 만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소비자들도 이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100(리터)당 1만원이었던 요소수는 10배 이상 치솟은 바 있다.

다만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유룩스 판매 비중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물량은 도매점을 통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 이 물량이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도심에 5·18 당시 군 장비 두 달 넘게 방치...“활용 검토”

헬기·장갑차 등 5대 들여와 야외전시 추진...‘트라우마’ 우려로 무산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유허 진압에 쓰였던 헬기·전차와 동일한 군 장비를 들여와 놓고 두 달 넘게 방치하고 있다.

진압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돼 기존 전시 계획이 무산되면서, 애당초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4일 경기 소재 한 군부대에서 장갑차 3대와 무장헬기 1대, 전차 1대 등 군 기동장비 총 5대를 넘겨 받았다.

해당 군 장비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진압 작전에 썼던 장비와 같은 기종이며,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난 도태·폐기 대

상 장비다.

시는 옛 전남도청복원협의회에 요구에 따라 군 부대로부터 해당 장비들을 인수, 지난해 9월부터 '5·18 출동 기동 장비 이전 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요지는 장비들을 광주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에 야외 전시, 학생사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썼던 군 장비를 통해 무자비한 진압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 학생사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자칫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당초 전시 계획은 백지화됐다. 운송비 9000만 원까지 들어 옮겨온 해당 장

비들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시는 5·18 교육관 내 주차장에 세워뒀다. 두 달 넘게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시는 오는 25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장비 활용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복원협의회가 거듭 요구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5·18단체, 시민단체, 주민, 트라우마 전문가 등과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면서 “2차 피해 우려 등은 충분히 감안하겠다.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방식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유나기자

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